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산별곡> 교수법 연구

- 10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김수연

<청산별곡> 교수법 연구
- 10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수 연

인 준 서

김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자가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며 깨달음을 얻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게끔 하는 것을 문학 교육의 목표라고 하였다. 학습자가 결국 문학을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다.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을 즐길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문학을 향유하는 능력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한 능력은 지식과 기능보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품의 제재가 교과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7 교육과정과 2007 개정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산별곡>과 교육과정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교육과정이 <청산별곡> 단원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교과서들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청산별곡>을 잘 구성해 놓았지만 학습활동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 보았다. <청산별곡>이라는 제재는 교과서마다 동일하며 이 제재를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활동만 재구성하였으며 재구성의 기준은 학습목표를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과서 분석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교사의 재량이고 이 지도안이 실제 수업에 쓰였을 때 어떤 반응

을 이끌어 낼지는 아직 모르지만 학습자가 <청산별곡>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문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많은 부족함이 있는 논문이지만 현장에서 이 학습지도안을 토대로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이고 참신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청산별곡>의 교육 양상 5

1. 교육과정과 <청산별곡>의 관련성 5
 - 1)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과의 관련성 5
 - 2) 개정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과의 관련성 8
 - 3) 교육과정과 <청산별곡> 제재의 적합성 11
2. 교과서 분석 13
 - 1) 7차 국어 (상) 국정 교과서 13
 - 2) 2007 개정 국어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국어 교과서 19
 - 3) <청산별곡> 교과서 재구성 37

III. <청산별곡>의 새로운 교수 학습 모형 49

1. <청산별곡> 텍스트 재구성 49
2. 수업지도안 구성과 수업연구 52
3. 보충 학습 활동 62

IV. 결론 7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2011년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상), 국어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했으나 2011년부터는 국어 교과서는 16종으로 학교마다 선택에 의하여 교과서가 다르다. 이전처럼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정이 아니라 각 출판부에서 만들고 교과부에 검수를 받는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국어 교과서라도 작품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었어도 작품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청산별곡>을 비롯하여 <관동별곡>, <진달래꽃> 등이 그 예인데 이중 <청산별곡>은 16종의 10학년 국어교과서 중 5종에 실려 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교과서도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렸던 <청산별곡>이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실리게 된 것은 그만큼 학습제재로써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청산별곡>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자부터 작품의 배경, 시어의 의미까지 작품을 이루는 구성요소 모두가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수많은 고려속요들 중에서 <청산별곡>이 10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 제재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담화적, 학문적, 교육과정적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위의 제재선정 기준을 충족시켰기에 <청산별곡> 또

한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재선정 기준 중 교과서 편찬과 수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이다.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이 된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 제재들이다.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정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이라는 단원의 소단원 (1)로 실려있다. 이 성취기준에 맞는 작품의 수준과 범위로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청산별곡>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검인정 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총 세 가지 성취기준에 의하여 교과서에 실렸다. 10-문-(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가 그 성취기준인데 이에 따른 작품의 수준과 범위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또는 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위에 나타난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볼 때 <청산별곡>은 문학사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아직 해석과 창작 시

기 등에 대해 연구자마다의 이견 차이가 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축소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한다. 교과서에 실린 제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목표를 성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산별곡>을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에 대한 선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산별곡>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작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어떤 이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청산별곡>에 대한 논의와 해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창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논의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해 <청산별곡>이 창작된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라는 것이 통설이다. 특히 이승철(1996), 허문섭(1989), 조기봉(2003) 등은 고려 시대 중에서도 ‘무신집권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박노준(1998), 이성주(1988) 등은 고려 시대 중에서도 ‘몽고항쟁기’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작자 및 주제에 대한 논의로 ① 이승명(1975), 전병민(2000), 정병욱(1980), 김언중 등은 ‘삶의 고뇌를 풀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헤매며 기적과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노래’라 주장하며 ② 신동욱(1982)은 ‘삶의 터전은 상실한 피지배 계층이 자연을 떠돌면서 부른 노래’로 추정하며 ③ 김학성(1980)은 ‘묘청의 무신난 이후 계속된 일련의 혁명적 사태에 가담한 일군의 민중들이 산과 바다로 몸을 피하면서 부른

1) 「‘청산별곡’의 감상 지도 방안 모색」, 김혜영,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4-15쪽.

노래'라 주장하며 ④ 성현경(1972), 이인모(1972)는 '실연한 여인의 노래'라 하였다.

셋째, 작품 구조에 대한 논의로, 여러 학자의 이견이 있으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청산곡'과 '바다곡'이 합쳐진 노래라는 것으로 '합성설'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5연과 6연이 교체되었다는 의견으로 '5,6연 교체설'이라 한다.

이 외에 시어 및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작품을 과연 왜 교과서에 수록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내용 성취기준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정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을 연계해서 한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을 주제로 한 것만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산별곡>의 교수 학습 방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수학습모형에 한정하였다.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희경의 연구²⁾에서는 <청산별곡>을 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한 활동 중심의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모형으로는 음악 교과의 악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사회 교과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가상일기 쓰기, 뮤지컬 대본을 활용한 연극하기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다른 영역과의 연계라는 측면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이 모형을 쓰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경은의 연구³⁾에서는 <청산별곡>을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문

2) 강희경, 「<청산별곡> 교육 방안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이경은, 「<청산별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8.

학의 수용과 창작,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가치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산별곡>의 교육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강지영의 연구⁴⁾에서는 급진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구성주의 문예학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의 핵심을 커뮤니케이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집단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 그리고 복수 교재와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업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선희의 연구⁵⁾에서는 <청산별곡>이 난해구가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작품에 관한 메타텍스트를 창조해 보는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연극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메타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간 논의가 활성화되어 <청산별곡>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논문들은 <청산별곡>을 10학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데 있어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개정 7차가 아닌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2011년에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10학년 국어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앞서 말했듯 바뀐 김인정 교과서에도 지난 국정 교과서와 같이 <청산별곡>이 실려 있으며 왜 5종이나 되는 교과서가 이 체제를 선택했을 지에 관해 의문이 생겨 이 논문이 출발하게 되었다. <청산별곡> 자체에 관한 연구나 국정 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 연구는 많지만 김인정 교과서를 가지고 <청산별곡>에 대한 교과서 분석이나 수업 모형이 제시된

4) 강지영, 「구성주의 관점의 <청산별곡> 감상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5) 이선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청산별곡> 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논문은 거의 없다. 본 논문이 개정 7차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청산별곡>을 수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II. <청산별곡>의 교육 양상

작품의 제재가 교과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7 교육과정과 2007 개정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산별곡>과 교육과정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교육과정이 <청산별곡> 단원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과 <청산별곡>의 관련성

1)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과의 관련성

국정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국어(상) 6. 노래의 아름다움 이라는 대단원에 실려있다. 이 대단원은 총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노래의 아름다움	
(1) 청산별곡	·문학의 아름다움 이해
(2) 어부사시사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요소 이해
(3) 진달래꽃	·문학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4) 유리창 1	말하고 듣는 활동
(5) 광야	·초인지적 듣기 태도 습득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주요한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소단원 (1) 청산별곡 역시 이러한 대단원의 학습목표와 동일하게 문학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시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 국어과 내용요소 중 문학 (2)와 문학(3)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학 (2)와 문학(3)의 영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문학-(2)】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기본] 작품에서 작품요소가 구성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작품의 예를 들어

말한다.

[심화] 작품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이들과의 관계에 유의하며 작품을

총체적으로 수용한다.

위의 성취기준은 대단원 6. 문학의 아름다움 의 학습목표 두번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와 관련이 있다. 6. 문학의 아름다움의 학습목표는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는 10-문-2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작품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언어의 소리적 자질, 의미적 자질, 회화적 자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형상성, 음악성, 함축성을 띠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학 갈래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태도를 기르는 것 까지를 이 대단원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성취 기준은 소단원 (1) 청산별곡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시의 형상성, 음악성, 함축성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 또한 작품을 교수학습 할 때에도 시의 3요소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작품 요소가 구성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학습활동과 위 성취 기준과의 비교는 뒤에 교과서 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10-문-(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갈래를 파악한다.

[기본] 여러 갈래의 작품을 읽고, 문학의 갈래에 따라 작품의 미적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말한다.

[심화]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쓴다.

위의 성취 기준은 대단원 6. 문학의 아름다움 의 학습목표 첫 번째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안다’와 관련이 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문학이 언어 예술이란 점과 연관된다. 예술은 다양한 매체를 재료 삼아 숙련된 기술로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이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재료인 언어를 작가가 일정한 질서 속에 배열함으로써 생겨나는 효과이다. 달리 말해, 문학의 아름다움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생겨나는 효과이다.⁶⁾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소단원을 구성해 놓았다. 그 중 소단원 (1) 청산별곡에서는 ‘알아두기’를 통해 위의 첫 번째 학습목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은 언어로 빚은 예술이다. 문학은 예술적 가치로서 아름다움(美)을 지닌다. 예술로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근본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즉 작품의 형상과 형태가 일정한 예술적 원리와 질서를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생겨난다.시의 아름다움은 시적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을 바탕으로 실현된다.⁷⁾

‘알아두기’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은 구성 요소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보았고 문학의 갈래 중 시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을

6)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70쪽.

7) 국어 (상) 6. 문학의 아름다움

바탕으로 실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단원 (1) 청산별곡에서는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 그 중에서도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개정 7차 교육과정과 <청산별곡> 과의 관련성

교육과정이 2007 교육과정에서 개정 7차로 바뀌면서 교과서 역시 바뀌게 되었다. 이 중 10학년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1종에서 검인정 교과서 16종으로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6종의 10학년 국어 교과서 중에서 <청산별곡>이 수록되어있는 교과서는 총 5개인데 미래엔컬쳐, 비상, 교학사, 천재(김종철), 천재(김대행)이다. 이를 각 대단원과 관련지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대단원	소단원
미래엔컬쳐	4. 전통과 예술	(1)청산별곡 (2) 시조 세 편 (3) 풀-김수영 (4) 춘향가- 성유향 창, 노재명 채록
비상	5. 오늘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	(1) 한국 문학의 전통 (2) 제망매가-월명사 (3) 청산별곡 (4) 관동별곡-정철 (5) 만무방-김유정
교학사	3. 문학과 예술	(1) 문학과 현실 - 두보나 이백같이/ 청산별곡/ 배반의 여름 / 목화/ 과꽃/ 뫼비들 갈희 것거~/ 시집살이노래 (2) 공연 예술의 이해
천재(김대행)	1. 문학으로 깨닫는 삶	(1) 삶의 조건 (2) 삶의 동력 지식 마당- 삶의 동력 깨닫기 이해 마당 - 청산별곡 / 광야(이육사) 적용 마당 - 허생전(박지원) (3) 삶의 방식
천재(김종철)	6. 삶과 문학	(1) 청산별곡 (2) 광야-이육사 (3) 구운몽-김만중

교과서마다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제재라 하더라도 다른 성취기준을 두었는데 <청산별곡>은 10학년 문학 (1)~(5)의 성취 기준 중 다음 세 개의 성취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0-문-(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해하기
- 작품 읽기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기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기

[작품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
-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작품의 수준과 범위]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문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해한다.
- 문학을 읽고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한다.
-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해 본다.

[작품의 수준과 범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비평문,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위의 세 가지 성취 기준 중 학습 목표와 비교하였을 때 먼저 10-문-(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의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는 교과서는 천재(김대행), 천재(김종철)이다. 저자가 다른 2종의 천재 교과서에서는 <청산별곡>을 10-문-(1)의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소단원을 구성하였는데 2장 교과서 분석에서 위의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의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는 교과서는 교학사이다. 교학사에서는 <청산별곡>을 10-문-(3)의 성취기준으로 소단원을 구성하였는데 독립된 소단원이 아니라 소단원 (1) 문학과 현실의 다양한 제재들 중 두 번째라는 점이 특이하다. 교학사 역시도 2장 교과서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의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는 교과서는 미래엔컬쳐와 비상이다. 먼저 미래엔컬쳐는 대단원 4. ‘전통과 예술’에서 그리고 비상은 대단원 5. ‘오늘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에서 <청산별곡>을 소단원으로 다루고 있다. 두 교과서 다 10-문-(5)의 성취기준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두 교과서의 차이점 또한 위의 교과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친절하게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10-문-(1)의 성취기준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의 수준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들었다. 또한 10-문-(3)에도 10-문-(1)의 작품 수준과 동일하며 거기에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

품이나 비평문이라는 것이 추가되는데 이는 10-문-(5)의 작품 수준과 범위와 같다.

위의 성취기준들을 종합해보면 <청산별곡>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이라는 측면과 인물의 내적갈등이 드러나고 문학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과서 제재로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과정과 <청산별곡> 제재의 적합성

국정 교과서 국어 (상)에서 청산별곡은 문학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시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한 제재로 실려 있다. <청산별곡>은 일찍부터 고려가요의 백미(白眉)로 평가되어온 작품이지만, 그 함의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다. 무엇보다 해명되지 않은 어휘가 적지 않고 그 창작의 문맥이 복원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작품의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국어교과에서 <청산별곡>은 해석 가능한 작품으로 일찍부터 학습 자료로 쓰고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때의 해석 내용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 곧 주체이고 보면, <청산별곡>은 보거나 읽는 이에 따라 그 주체가 달리 파악될 수 있는 작품이 된다. 8)

7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10-문학-(2)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와 ‘10-문-(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갈래를 파악한

8) 「국어교과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임주탁, 한국문화학회, 2009

다.’ 만 놓고 보면 <청산별곡>은 위의 성취기준에 알맞은 작품으로 보인다. 시적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이 잘 드러난 고려가요라는 갈래를 통해서 학습자가 고려가요라는 장르의 특성도 알게 되고 후렴구를 통한 운율의 반복과 그로 인한 음악성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자가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며 깨달음을 얻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게끔 하는 것을 문학 교육의 목표라고 제시해 놓았다. 또한 대단원 6. 문학의 아름다움 에서도 5개의 소단원과 각 학습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학습자가 문학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체험하는 것까지 나아가게끔 구성이 되어있다. 즉, 학습자가 결국 문학을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최종적 목표인 것이다.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을 즐길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문학을 향유하는 능력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한 능력은 지식과 기능보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성취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청산별곡>이 고1 학습자에게 적합한 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고려가요라는 갈래의 특성과 후렴구와 울림소리를 통한 운율의 반복 등이 성취기준과 부합하여 <청산별곡>이 단원에 적합하다고 여겨 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절대주의적 관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보다는 문학 작품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행위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화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도서의 교수학습에서도 <청산별곡>은 ‘누군

가 무엇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 보고, 학생들에게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품 속 화자의 태도, 정서의 공감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작품으로서의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물론 <청산별곡>은 해석의 논란이 있고 그 함의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학습재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고려가요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단순한 사랑노래가 아니라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즉, <청산별곡>은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논란거리가 있지만 교수학습이 될 만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뿐 아니라 개정교과서에서도 실린 것으로 보인다. <청산별곡>이 학습재재로 더 적합하게 되려면 그에 알맞은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와 2007 개정 김인정교과서를 분석하고 학습활동이 재재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학습목표와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과서 분석

(1) 7차 국어 (상) 국정 교과서

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6. 문학의 아름다움의 전체 학습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단원의 학습목표>

-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안다.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
-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목표들 중 첫 번째 학습 목표는 10-문-(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갈래를 파악한다.’와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학습 목표는 10-문학-(2)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10-듣기-(5)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와 연결되는데 이는 본문 보다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의 아름다움은 문학의 감상보다는 문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빛어내는 효과지만, 독자에 의해 제대로 파악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그리고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의 아름다움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단원에서는 ‘청산별곡(靑山別曲)’,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진달래꽃’, ‘유리창1’, ‘광야(曠野)’ 등 다섯 편의 시를 읽으면서, 문학의 아름다움이 어떤 특질에 의해 실현되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본다. 아울러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로 말하고 들으면서,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며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주요한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화제 삼아 학습자들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할 때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며 듣는 태도가 상호간의 원만한 이해 및 자신의 듣기 능력 향상에 매우 긴요한 태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을 또 다른 주요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⁹⁾

단원의 길잡이는 전체 단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소단원의 목차와 학습 활동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학습목표를 다시 한번 나타냄으로써 학습자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9)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 273쪽.

다음으로는 준비학습이 나타나 있다. 준비 학습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 단원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미리 예고해주는 역할을 한다. 준비학습은 이 은상의 ‘가고파’ 라는 시를 통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가곡으로 불린 시의 일부이다.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이 시를 낭독하거나 노래로 불러보고, 낭독할 때와 노래할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2. 이 시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3.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 읽어보자.

먼저 첫 번째 활동은 학습자가 낭독과 가창 활동을 통해서 각각 어떤 느낌이 드는 지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래로 부르도록 했는데 이는 운율이 있을 경우와 아닌 경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학습목표인 문학의 아름다움을 안다와 관련이 있으며 ‘알아두기’에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요소로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에 중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중 음악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 학습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활동은 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가사를 보고 학습자가 반복으로 인한 느낌과 그 효과를 파악하게 한다. 앞서 시의 음악성을 아는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을 실현시키는 구성 요소를 알게 하는 준비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반복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작품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며 독자는 어떤 감동을 받는지를 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학습 목표 두 번째인 ‘문학 작품을

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활동은 시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 읽는 활동인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지식과 기능을 배웠으면 그로 인하여 태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태도 교육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문학의 아름다움을 깨친 학습자가 그것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까지 도달하도록 만드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준비 학습은 단원의 길잡이처럼 소단원 본문을 들어가지 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음악성과 반복을 통한 효과를 노래를 통해서 학습자가 알 수 있게 해 놓았고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된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단원 1. 청산별곡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뜨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피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스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악장가사(樂章歌詞)'

준비 학습 다음으로는 본문인 <청산별곡>이 실려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문이 모두 실려있으며 옆에 학습자가 좀 더 수월하게 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다양한 부분을 날개 형식으로 달아놓았다.

예를 들어 '살어리랏다'의 경우 살리라. 살고 싶구나 라고 적은 다음 다른 해석이라고 하여 '~리랏다'를 과거 가정법으로 보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과거에 내가 좀 더 현명했다라면 청산에 살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일랑, 날이 무딘 병기(兵器)랑, 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으로 나타낸 것을 들 수 있다. 10)

10) 국어 (상) 6. 문학의 아름다움, 232쪽.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청산별곡>은 제재 자체의 내용 파악보다 ‘청산별곡’의 내용 및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공감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산별곡’이 어떤 특질 때문에 공감되는지, 표현 및 내용의 측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지도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을 제대로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에는 <청산별곡>이 해석 없이 원문만 실려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옆에 날개로 다양한 해석을 해 놓았어도 학습자가 원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해석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무리 학습목표가 문학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고 이를 느끼기 위한 요소로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에 중점을 둔다고 했어도 운율을 파악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문학의 아름다움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밑에 해석을 달아놓고 그것에 관해 학습자가 다양하게 사고하게끔 하면서 작품을 읽어나가게 교과서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혼자하기 1. 이 작품 속 화자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대해 추리하여 말해 보자.

(2) 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따라 노래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해보자.

혼자하기 에서는 작품 속 화자의 위치를 찾고 그로 인해 해석이 다양하게 됨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먼저 학습자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야 문학의 아름다움과 그 기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개념적 학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학을 즐겨 찾아 읽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향유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표 하에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용 학습에 관한 활동이 먼저 제시되었다.

혼자하기는 학습목표 두 번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 <청산별곡>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제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끔 하는 것이다.

함께하기 2. 문학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청산별곡’와 ‘아리랑타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받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함께하기 2는 학습목표 두 번째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학습목표 첫 번째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와도 관련되어 있다. 두 작품 다 후렴구가 존재하며 그것이 운율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음악성이라는 측면과도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시의 구성요소인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의 언급만 있을 뿐 이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산별곡> 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산별곡>은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목표 두 번째가 학습활동과 관련 있을 뿐이며, 첫 번째 학습목표는 ‘단원의 길잡이’에서 언급만 되었을 뿐 학습활동으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원의 길잡이’의 내용과 학습활동의 내용도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07 개정 국어교육과정에 따른 10학년 국어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뀜에 따라 교과서의 종류가 16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중 ‘청산별곡’이 실린 교과서는 총 5종인데 여기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10-문-(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

다.’의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는 교과서 (천재(김대행), 천재(김종철)),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의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가 되는 교과서(교학사), 10-문-(5) ‘수용과 전송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가 성취기준이 되는 교과서(미래엔컬처, 비상)이다.

위에 제시된 순서대로 교과서들을 살펴보고 각각 성취기준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학습활동과 학습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제제는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식으로 논지를 진행시키고자 하겠다.

① 천재(김종철) 교과서

<학습목표>

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2.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천재(김종철)에서는 대단원 6. 삶과 문학의 전체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두 가지 학습목표 중 1번째가 10-문-(1)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는 10-문-(3)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소단원 (1) 청산별곡은 첫 번째 학습목표를 위한 제재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단원 학습구조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단원 학습구조도>

(1) 청산별곡(靑山別曲)

- 문학이 주는 위안 이해하기
- 문학 작품 감상의 긍정적 효과 토론하기

대단원 학습 구조도에서 청산별곡을 통해서 문학이 주는 위안을 이해하고, 문학 작품 감상의 긍정적 효과를 토론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0-문-(1)의 내용요소 첫 번째, 두 번째와 일치한다. 즉, 학습자는 <청산별곡>을 통해서 문학작품이 주는 위안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는 문학 작품 감상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단원 준비학습 >

(1) 청산별곡

- 다음 글을 읽고, 현실에서는 다다를 수 없는 이상향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소단원 준비학습에서는 한 어부가 길을 잃어서 무릉도원에 다녀온 이야기가 실려있고 삽화로는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같이 나타나있다. 준비학습에서는 글을 읽고 왜 이상향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 하는지에 대해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뒤의 <청산별곡>이 이상향에 대한 노래라는 점과 대단원 학습구조도 첫 번째인 문학이 주는 위안을 이해한다는 것과 연

관이 있다. 또한 옆 페이지에 ‘알아두기’에서 문학의 효용과 문학이 주는 위안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준비 학습을 통해서 생각한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소단원 - 청산별곡>

학습안내 Ⅱ ‘청산별곡’은 고려 시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노래이다.
화자의 삶의 태도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준비 학습 다음으로는 본문인 <청산별곡>이 실려있다. 국정교과서와 동일하게 본문이 제시되고 옆에 작품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고 하여 날개를 달아 놓았다. 학습안내에서 화자의 삶의 태도에 주목하여 청산별곡을 감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자가 어떻게 삶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작품을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준비학습과 알아두기에서 문학의 효용에 관하여 배웠기 때문에 더욱 작품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

<학습활동>

- 이해 1. ‘살어리랏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말해 보자.
2. 마지막 연에 나타난,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해 보자.

천재(김중철)의 학습활동은 이해-목표-적용 활동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는 먼저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학습목표와 연관해서 목표활동을 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해 1에서는 ‘살어리랏다’의 해석에 따라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는 앞에 날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고 싶구나.

다른 해석 ‘~리랏다’를 과거 가정법으로 보아 ‘살았으면 좋았을것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과거에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청산에 살았을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¹¹⁾

이해 2에서는 마지막 연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데 이는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체념의 정서를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낸 활동으로 보인다.

이 체념의 정서를 이해하고 나서야 목표 활동으로 넘어가서 이 노래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의 목표 활동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왜 화자가 체념의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3. ‘청산별곡’이 향유되는 상황을 상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① 화자가 청산에 살고 싶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자.
- ② 화자가 실제로 청산에서 살게 되었을지 추측해 보자.
- ③ 당대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 어떤 위안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자.

11) 국어 (하), 6. 삶과 문학 (1) 청산별곡, 천재 (김종철) 교과서, 202쪽.

목표 학습은 ‘청산별곡’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서 이해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

먼저 목표 3-①에서는 청산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노래가 향유되던 상황을 상상하며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려시대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노래가 지어진 시대가 고려시대라는 것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문의 학습 안내에 ‘청산별곡은 고려 시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노래이다’라고 되어있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목표 3-②는 화자가 청산이라는 공간에서 살았을 지에 대해 추측하는 활동인데 이것 역시 시대와 관련지어 파악해야 청산이라는 공간의 의미, 그리고 그 가능성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목표 3-③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독자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더 나아가 문학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 앞의 두 활동보다 이 활동이 제일 학습목표와 연관이 있지만 이것 역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뒤의 교과서 재구성에서는 이런 점을 참조하여 이 활동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4. 3을 바탕으로 문학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해 보자.

- ①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문학 작품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

자.

② 문학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을 주지 않더라도 내 삶에 위안을

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목표학습 4 역시도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 있는 활동이다. 앞의 목표학습 3은 당시의 시대와 연관 지어 작품을 이해하게 했다면 이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해서 활동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목표학습 4-①에서는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활동이 나타나 있고 4-②에서는 문학이 삶에 위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문학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삶을 내용으로 하여 그 상황을 쉽게 헤아려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삶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나와 주위 세계를 이해하거나 성찰하는 기회를 얻는다. 목표학습 4는 이러한 문학의 효용성과 학습목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용 5. 문학이 주는 위안을 생각하며 ‘청산별곡’과 ‘들길에 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① 두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② 두 화자가 삶에 대응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③ 두 시가 모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이야기해 보자.

적용활동은 청산별곡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본문에서 얻은 지식을 심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여기서는 비교 제재로 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을 수록해 놓았다. 5-①과 ②에서는 상황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게 되어 있고 5-③에서는 앞서 제시한 목표학습과 유사하게 문학의 효용성이라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5-①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청산별곡의 상황이 어떤지 배웠다면 ‘들길에 서서’의 상황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5-②에서는 태도의 차이를 묻고 있는데 이것도 청산별곡 화자의 태도를 안다면 이 작품은 그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①과 ②는 내용적 측면과 관련이 있고 5-③은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와 두 번째 학습목표인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천재(김대행) 교과서

<학습목표>

- 문학이 삶의 표현임을 알고 작품을 통해 삶을 이해한다.
- 문학이 보여주는 삶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한다.

천재(김대행)에서는 대단원 2. 삶의 동력의 전체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중 첫 번째 학습목표는 10-문-(3)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는 10-문-(1)과 관련이 있다.

성취 기준을 그대로 학습목표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나타냈는데 첫 번째 학습목표는 삶과 문학 작품의 상호 참조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10-문-3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학습목표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10-문-1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천재(김대행)에서는 삶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청산별곡’과 ‘광야’를 묶어서 소단원으로 구성했는데 소단원 도입부에서 문학으로 삶의 동력을 깨닫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 ① 작품 속 인물의 삶에서 삶의 동력을 발견하여 요약한다.
- ② 요약한 바를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고, 이를 일반화한다.
- ③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나는 000로 살아가고자 한다.’로 표현한다.¹²⁾

여기에서는 작품 속 인물의 삶을 파악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학 작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입부에서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제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도록 하겠다.

<어휘력 기르기. ‘얄리얄리~’의 느낌 활용하기>

12) 국어 (상). 2. 삶의 동력 지식 마당, 천재 (김대행), 34쪽.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옛노래 ‘청산별곡’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언어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하면서 그 말이 주는 느낌을 파악합니다.

[1]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소리내어 읽고 그 느낌을 말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을 사용된 음운과 연관지어 말합니다.

[2]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나 그와 비슷한 어감을 주는 표현들이 오늘날에도 노래의 후렴구나 제목, 상호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둘 이상 찾고, 이런 말을 사용한 까닭을 말합니다.

도입활동은 ‘어휘력 기르기’ 라고 하여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알리~’의 효과를 이해해보는 활동이 실려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학습자가 직접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음운과 관련지어서 말해보라고 되어 있다. 운율이나 유음을 이해하기에 앞서 학습자가 먼저 체험해 보고 스스로 그것을 파악해 보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체험과 사고를 중시하는 개정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알리알리~’와 같은 표현을 노래 제목이나 상호 등에서 찾게끔 하고 있는데 문학 작품이 아니라 실생활과 관련된 것에서 사례를 찾게 하고 있다. 이 역시도 지식과 기능 위주보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는 개정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도입활동은 본문과 관련이 있으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잘 된 활동이지만 이 단원은 청산별곡 뿐만 아니라 광야도 같이 실려있고 학습목표와도 관련이 적기 때문에 교과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이해마당 - 청산별곡, 광야 >

청산별곡

다음은 널리 사랑을 받았던 옛 노래 한 편과 일제 강점기에 쓰인 시 한편입니다. 삶의 조건과 동력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활동합니다.

1. 두 작품에 나타난 삶의 조건과 태도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2. 두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어떤 힘에서 나왔는지 비교·대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3. 활동 2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삶의 동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정리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이해마당에서는 학습제재로 청산별곡과 광야가 실려 있다. 삶의 조건과 동력에 주목해서 두 작품을 비교하라고 학습 안내에 되어 있으며 본문 아래 다른 교과서들처럼 날개 형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적혀 있다. 이 단원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활동은 삶의 조건과 태도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는 첫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삶의 표현임을 알고 작품을 통해 삶을 이해한다.’와 이어진다. 삶의 조건은

화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고 삶에 대한 태도는 화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보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하면 된다고 교과서 도움말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을 이해하게끔 하고 있다.

두 번째 활동은 두 작품의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그 동력이 무엇인지 안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삶의 태도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 그 태도의 동력이 무엇인지 학습자가 알아 보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소단원 도입부에서 문학으로 삶의 동력을 깨닫는 방법을 나타냈으므로 그것과 관련지어 확인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을 그 사람의 마음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삶의 동력이 드러난다고 도움말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세 번째 활동은 활동2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활동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을 통해서 학습목표 1. ‘문학이 삶의 표현임을 알고 작품을 통해 삶을 이해한다.’ 라는 학습목표에 도달했으니 두 번째 학습목표인 ‘문학이 보여주는 삶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한다.’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작품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속에서 단계적으로 학습 목표에 접근해 간다는 점에서 이 활동들은 잘된 활동이라 보인다.

③ 비상교과서

대단원 도입 활동으로는 ‘알아두기’라 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에 관한 글과 문학 작품 감상과 비평적 안목에 대한 글이 한 단락씩 실려 있다. 대단원 5. 오늘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은 총 다섯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별곡은 그 중 세 번째 소단원에 들어가 있으며 향가와 고려 가요를 감상하고 시가의 형식적·민요적 전통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게끔 제시되어 있다.

< 소단원 3. 청산별곡 >

학습목표

-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고려 가요에서 민요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비상에서는 대단원 5 오늘로 이어지는 문학의 세 번째 소단원 ‘청산별곡’의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위의 학습목표들은 10-문-5와 관련이 있다.

성취 기준을 그대로 학습목표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나타냈는데 첫 번째 학습목표는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세 번째인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학습목표는 10-문-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에서 고려가요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단원 5 전체가 수용과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소단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소단원들이 개별 갈래와 관련지어서 학습 목표가 성취기준을 약간씩 변형해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국 문학의 전통 중 고려 가요라

는 갈래,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감상하고 고려가요의 민요적 전통을 찾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민요를 불러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자 (밀양 아리랑)

소단원의 도입 활동으로는 밀양 아리랑의 악보가 실려 있다. 학습목표에서 민요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게끔 하였고 도입 활동으로 친숙한 민요를 실어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듣기 활동으로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밀양 아리랑은 고등학생인 학습자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음악 시간 때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서 부르기 쉽고 또 학습자들이 직접 불러봄으로써 운율이나 흥취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가 아닌 읽기 활동으로 구성해 놓았으리라 생각된다.

<학습활동>

1. 청산별곡의 중심 내용과 시의 화자에 대해 살펴보자.
 - (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 (2) 이 고려 가요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학습활동 1은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먼저 (1)에서는 1연부터 8연까지를 표로 제시하였고 1연과 5연에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적혀 있다. 예시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예시문을 바탕으로 정서를 파악하게끔

하고 있다. (2)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응방식을 살펴보고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1-(1)의 활동은 화자의 정서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충분히 표를 채울 수 있고 정서 중심으로 구조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2)의 활동은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활동인데 작품 내에서 화자의 상황과 현실 대응 방식을 수업을 통해 찾을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시어의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 해석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지며 대응 방식으로만 학습자가 화자를 짐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기>나 다른 관련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

2. 청산별곡에 나타나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1) ‘청산’과 ‘바다’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적어 보자.
- (2) ‘새’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이 고려 가요에서 ‘새’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자.
- (3) 다음 글을 읽으면서 화자에게 ‘돌’과 ‘강수(강술)’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학습활동 2는 내용과 목표 학습에 관련된 활동이다. 먼저 2-(1)은 내용 관련으로 ‘청산’과 ‘바다’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적게 하는 활동인데 이는 학습목표 첫 번째인 시어의 의미 파악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2-(2) 역시

첫 번째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새’의 기능을 알게끔 하는데 작품 내에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작품 밖에서 일반적 이미지도 파악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다양한 의미로 시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2-(3)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인데 여기서는 ‘돌’와 ‘강수’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밑에 제시해 놓았다. 청산별곡의 내용이 화자에 따라서 그리고 의미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본문 자체로는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보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학습목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잘 이루어진 학습활동으로 보인다.

3. ‘청산별곡’과 다음 민요를 감상하고, 후렴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리랑 타령)

(1) ‘청산별곡’과 ‘아리랑 타령’의 후렴구를 찾고, 그 기능과 공통점을 적어 보자

(2) ‘청산별곡’과 ‘아리랑 타령’의 후렴구와 비슷한 기능과 형식을 지닌 후렴구를

만들어 보자.

학습활동 3은 확장과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다. 두 번째 학습목표에서 ‘고려 가요에서 민요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

기서는 ‘아리랑 타령’을 제재로 놓고 후렴구라는 측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다.

먼저 3-(1)은 후렴구를 찾고 기능과 공통점을 적는 활동이다.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라성이 적혀 있으므로 아리랑 타령에서는 반복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라는 것을 학습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능과 공통점은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리랑 타령에 적용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아리랑 타령의 본문을 적는 것보다 듣기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면 학습자가 좀 더 재미있고 쉽게 공통점과 후렴구의 기능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2)는 두 작품의 후렴구와 비슷한 기능과 형식의 후렴구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울림소리와 관련한 내용이 날개 형식으로 교과서 옆에 제시되어 있었으면 학습자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④ 미래엔컬처

<대단원 들어가기> - 학습목표

1.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할 수 있다.

미래엔컬처 에서는 대단원 4. 전통과 예술의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제시

하였다. 위의 학습목표들 중 첫 번째 학습목표는 10-문-5의 성취기준인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와 동일하며 두 번째 학습목표는 10-듣-4의 성취기준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와, 세 번째 학습목표는 10-말-5의 성취기준인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와 같다. 대단원 4 전통과 예술은 총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청산별곡, (2) 시조 세 편, (3) 김수영의 풀, (4) 춘향가로 이루어져 있다.

(1) 청산별곡

대단원과 관련하여 소단원 첫 번째 ‘청산별곡에 대한 소개로는 이 시가는 우리의 정서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청산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이 작품을 통해 전통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문학과 비교해 보자.’ 라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단원에 대한 학습목표로는 ‘문학적 전통의 특징을 파악하며 청산별곡을 감상해 보자’라고 나타나 있다.

소단원 열기에는 병풍 사진이 나타나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 십장생을 찾아 보고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을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안내 활동으로 되어 있다. 소단원 학습목표에서 문학적 전통의 특질을 파악하며 감상하라고 했으므로 그것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우리 민족이 청산을 이상향으로 보았다는 점을 묶어서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와 적용>

이해활동.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문학적 전통의 수용과 전승 과정을 이해한다.

1. 이 시가의 화자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화자의 위치에 대해 추리해 보자.

(2) 화자의 위치에 따라 노래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해 보자.

2. 다음 민요의 형식을 ‘청산별곡’과 비교해 보자.

(1) ‘청산별곡’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와 민요의 ‘에호리 지경이요’의 기능상 유사한 점을 말해 보자.

(2) ‘에호리 지경이요’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구절을 오늘날 대중가요에서 찾아보자.

미래엔컬쳐 교과서는 학습 활동을 크게 이해 활동과 적용 활동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먼저 이해활동은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문학적 전통의 수용과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이해 1의 활동은 작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작품 속 화자의 위치를 통해서 노래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학습자가 알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문학적 전통의 수용과 전승을 이해한다는 것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이해 2의 활동은 민요의 형식과 청산별곡을 비교하는 활동인데 ‘집터 다지는 소리’라는 민요의 한 토막을 제시하였다. 후렴구의 기능을 묻는 활동과 이것을 대중가요까

지 확대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려가요의 후렴구가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전승되고 수용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목표를 잘 드러낸 활동이라고 보았다.

적용활동.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말해 본다.

1. ‘청산에 살리라’를 듣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노래를 듣고 느낌을 말해 보자.

(2) ‘청산별곡’의 청산과 이 노래의 청산이 의미하는 바를 비교해 보자.

(3) 청산을 제대로 한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창작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적용 활동은 학습자가 이 단원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이나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시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활동이다. ‘청산별곡’이 고려가요이고 본디 가창되던 것이라는 걸 고려하여 적용활동으로는 ‘청산에 살리라’라는 가곡의 악보가 실려있다. 학습자가 이 노래를 듣고 청산별곡의 청산과 노래의 청산이 의미하는 바를 비교하고 이런 제재의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의 이해 활동에서는 민요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전승되는 걸 보았다면 적용 활동에서는 제재가 현대까지 전승되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해-적용 활동의 연관성도 있고 활동 목표와도 관련이 있어서 잘 된 활동으로 보았다.

⑤교학사 교과서

<학습목표>

1. 문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해한다.
2. 문학을 읽고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한다.
3.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해 본다.

교학사에서는 대단원 3. 문학과 예술 중 소단원 (1) 문학과 현실의 학습 목표를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위의 학습목표들은 10-문-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의 내용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학습목표는 10-문-3의 내용요소 첫 번째인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방안 이해하기’와 유사하며 두 번째 학습목표는 내용요소 두 번째와 동일하다. 세 번째 학습목표 역시 10-문-3의 내용요소 세 번째와 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위의 학습목표는 10-문-3의 성취기준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의 도입 활동으로는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가 실려 있다. 이에 연관된 학습활동으로 ❶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이 시를 이야기로 꾸며 보자.’와 ❷ ‘할머니가 소에게 건넸을 말을 상상해 보자.’가 나타나 있는데 단원 열기에서 이 단원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와 청산별곡과의 관련성도 그렇고 시의 내용이 고1인 학습자가 공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해와 확인

1. 다음은 우리 고전 시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aaba 구조의 예이다.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구조로 된 행을 모두 찾아보자.

2. 다음은 이 시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관계가 깊은 시어를 연결해 보자.

3. 내가 만약 ‘청산별곡’의 화자와 같은 현실에 놓였다면 어떤 해결책을 구했는지 (가)와 (나)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4.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5. 이 작품의 화자와 같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모방 시를 지어 보자.

이해와 확인 활동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활동 1에서는 가시리의 한 구절인 ‘가시리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시리잇고’를 통해서 aaba 구조를 찾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작품의 구조 파악이라는 측면과 이를 통해 학습자가 운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활동이라고 보여진다. 활동 2는 시어와 그와 관련된 반응을 짝짓게 하는 활동인데 시어를 제시하고 쓰게 하는 것보다 서로 짝짓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좋게 보인다. 활동 3은 학습자가 청산별곡 화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활동인데 황지우의 ‘산경’의 한 구절과 이백의 ‘산중문답’ 한 구절이 실려 있다. 황지우의 시에서는 ‘그러므로 길 가는 이들이여, 그대 비록 악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약과 마음을 얻었으면 아픈 세상으로 가서 아프다.’ 라고 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자는 태도가

드러나 있고 이백의 시에서는 ‘ 왜 산에서 사느냐고? 웃어 보일 뿐 내 마음 한적하기만 하네. 복숭아꽃 물길 따라 아득히 흘러가는데, 여기가 바로 딴 세상 속세를 떠났도다.’라고 하여 속세를 떠나 은둔해 사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은거와 부딪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며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학습자가 생각하게 함으로써 시를 좀 더 내면화시키고 화자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잘 된 활동으로 보았다. 활동 4는 ‘청산별곡’을 현실 도피적인 시가로 보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이 시에서는 무엇으로 표시되었는지를 찾게 하는 활동인데 학습자에게 시가 지어진 시대의 배경을 알려줌으로써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잘 된 활동으로 보았다. 활동 5는 모방시를 짓는 활동이다. 1연과 2연을 제시하고 패러디하게 했는데 학습활동의 수가 많고 앞에서 청산이 이상향을 나타낸다는 점과 새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도 했기 때문에 이 활동은 다른 식으로 재구성하거나 빼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 좋다고 보여진다.

생각넓히기. 다음 노래 가사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노래의 가사가 전해 주는 화자의 체험을 현재와 과거로 나누어 재구성 해 보자.
- (2) 이 노래의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생각넓히기 활동에는 ‘과꽃’이라는 가곡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고 노래의 가사가 전해주는 화자의 체험을 재구성하는 활동과 학습자가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은 앞의 학습목표들이 ‘인간의 보

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 드러난 정서에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과꽃의 가사는 시집간 누나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학습자, 더 나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정서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학습목표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에서 잘 된 활동이라고 보았다.

3) <청산별곡> 교과서 재구성

교과서들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청산별곡>을 잘 구성해 놓았지만 학습 활동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 보았다.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 국어(상)과 검인정 교과서 5종에 실린 <청산별곡>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제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개의 교과서 모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으며 날개의 형태로 시구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았다.

다양한 해석을 달아놓은 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청산별곡>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자부터 작품의 배경, 시어의 의미까지 작품을 이루는 구성요소 모두가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어구에 대해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대에 올라셔 히금(奚琴)을 햏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므 | 와 잡스와니 내 엇디 햏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살어리랏다** '살리랏', '살고 싶구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다'로 풀이하기도 한다.
- **우러라** '올어라' 또는 '우는구나'로 풀이하기도 한다. '올다'는 '(울음을) 올다'의 뜻일 수도 있고, '노래하다'의 뜻일 수도 있다.
- **가던 새**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새(발)'로 풀이하기도 한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의미의 표현보다는 운율적 효과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여음 혹은 조흥구. 여기서는 형식상의 통일성을 위한 후렴구이기도 하다.
- **본다** '본다' 또는 '보았느냐'로 풀이하기도 한다.
- **잉 무든 장글란** '이끼 묻은 쟁기일랑', '날이 무딘 병기(兵器)랑', '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 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 **디내외손더** '지내왔구나' 또는 '지낼 수 있구나'로 풀이하기도 한다.
- **늑무자기** 나문재. 해변가에 나는 일년초 식물.
- **예정지** 아직 정확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豫定地(예정지)의 오기',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 '돌아가는 갈림길', '올타리로 에워싸인 곳' 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 **사슴미** 사슴이. 이때의 사슴이 실제 사슴이라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혹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의 표현이 된다. 이 외에 사람의 오기(誤記)로 보기도 하고,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짐대** 장대, 짐대. 짐대는 당(幢)을 달아 세우는 대.
- **설진** 강수를 진하고 강한 술.
- **조롱곳** 조롱꽃, 조롱 향기.

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다양한 해석
국정 교과서 국어 (상)	살어리랏다, 우리라, 가던 새, 잉 무든 장글란, 예정지,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교학사 교과서	살어리랏다, 우리라, 사던 새, 잉 무든 장글란, 예정지,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강수를
미래엔컬처 교과서	살어리랏다, 우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디내와손더, 미리도, 느므자기, 예정지, 사스미, 짚대, 설진, 조롱곳
비상교과서	우리라, 널라와, 잉 무든 장글란, 느므자기, 예정지, 짚대, 설진, 조롱곳
천재(김대행) 교과서	살어리랏다, 우리라, 가던 새, 잉 무든 장글란, 예정지,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천재(김종철) 교과서	살어리랏다, 우리라, 가던 새, 잉 무든 장글란, 예정지,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설진, 강수를

교과서마다 어구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잉 무든 장글란’과 ‘예정지’, 그리고

‘우리라’와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에 대한 것은 모든 교과서에 동일하게 실려있었다. 이것은 위의 어구들이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잉 무든 장글란’의 경우는 ①이끼 묻는 쟁기일랑, ②날이 무든 병기(兵器)랑, ③이끼 묻은 은장도랑 의 세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해석에 따라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은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교과서의 제재를 손댈 수가 없지만 교사가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Ⅲ장의 <청산별곡> 교수 학습 모형에서 ‘<청산별곡> 텍스트 채구

성'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교과서가 반드시 정전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의 가치와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반드시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글 제재와 활동이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학습의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다. 반드시 재구성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학습활동 또한 재구성을 해 보았다. 재구성의 기준은 단원의 학습목표를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재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은 자국어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범교과적인 도구적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하며, 또한 성인이 된 후에 삶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언어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문화 유산의 습득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어 활동을 분석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즐거움의 원천, 상상력의 자극, 간접 체험의 수단, 언어 발달의 통로 등 독서가 지니는 개인적인 가치도 제재의 선택에 유의한 참고가 되어야 한다.¹³⁾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27쪽.

① 천재(김중철) 교과서

목표활동 3은 <청산별곡>이 향유되는 상황을 상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인데 이것은 <청산별곡>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서 이해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다. 3-①, ②, ③의 활동을 하려면 이 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학습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본문에서도 시대적 배경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고 학습활동에서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쪽으로 활동을 재구성해 보았다.

▶ <청산별곡>의 시대적 배경

청산별곡의 창작 시기는 고려 후기 무신의 집권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 전체가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시달리던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무신들의 횡포와 원의 세력에 기댄 권문세족들의 수탈이 막심하여 많은 백성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나 사방으로 유랑하던 시기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쉽게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세속을 떠나 은둔하기도 하였던 것이 고려 후기의 현실이었다.

위의 자료를 옆에 도움말로 넣거나 <보기>자료로 나타내면 학습자가 청산별곡이 향유되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3의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활동 자체는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고 도움 자료만 보충하는 식으로 재구성하였다.

② 천재(김대행) 교과서

도입활동은 ‘어휘력 기르기’ 라고 하여 <청산별곡>의 후렴구의 효과를 이해해보는 활동이 실려있다. 도입활동은 본문과 관련이 있으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잘 된 활동이지만 이 단원은 <청산별곡>뿐만 아니라 <광야>도 같이 실려있고 학습목표와도 관련이 적기 때문에 교과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단원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읽음으로써 학습자가 내 삶의 조건을 살피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관지어 도입 활동을 구성해 보았다.

<p>기존 활동</p>	<p>‘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옛노래 ‘청산별곡’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언어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하면서 그 말이 주는 느낌을 파악합니다.</p> <p>[1]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를 소리내어 읽고 그 느낌을 말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을 사용된 음운과 연관지어 말합니다.</p> <p>[2]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나 그와 비슷한 어감을 주는 표현들이 오늘날에도 노래의 후렴구나 제목, 상호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둘 이상 찾고, 이런 말을 사용한 까닭을 말합니다.</p>
--------------	---

재 구성 활동	<p>바다에 가서 물총을 쏘며 문어처럼 살고 싶다 해삼과 전복의 숨은 동무가 되어 그들 단단한 내면을 욕심내면서 내 쓰라린 삶 모두 지우고 싶다 수십 차례의 계절 지나고서 다시 태어난다면</p> <p style="text-align: center;">- 다시 태어난다면 / 이유경 -</p> <p>위의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p>
------------	---

기존 활동에서는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의 효과를 이해해보는 활동이 도입부에 실려있다. 교과서 단원 구성 요소는 크게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삼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도입부는 일반적으로 단원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천재(김종철) 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대단원 1. 문학으로 깨닫는 삶의 소단원 02. 삶의 동력이라는 부분의 이해마당으로 <광야>와 함께 실려있다. 이 활동 전에는 ‘삶의 동력 깨닫기’ 라고 하여 삶의 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정리와, ‘문학으로 삶의 동력을 깨닫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단원의 학습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습 방법을 안내한 부분이다.

어휘력 기르기 활동은 ‘삶의 동력 깨닫기’ 다음에 실려있는 활동으로 이것은 옆의 학습 방법을 안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 소단원은 <청산별곡>만 실려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별곡>과 <광야>가 함께 실려있기 때문에 도입 활동은 두 체재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휘력

기르기' 활동은 <청산별곡>에만 한정되어 구성된 활동이고 이것은 <광야>와 관련이 없다. 또한 '삶의 동력 깨닫기'에서 삶의 동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활동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구성한 활동에서는 이 소단원의 제목이 삶의 동력이고 문학으로 이러한 삶의 동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제재를 선택하였다. 재구성의 제재로는 이유경 시인의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시를 택했는데 이 시가 <청산별곡>과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광야>와는 현대시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문학이 자신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와도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에 청산별곡에만 맞는 도입활동이 아니라 청산별곡과 광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활동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③ 비상교과서

학습 활동 중 내용 1-(2)의 활동은 '이 고려 가요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이다. 그러나 단원의 길잡이에서 청산별곡의 단원 학습 과정은 '고려 가요의 이해와 감상 → 시어의 의미 이해 → 후렴구의 기능과 형식 이해' 라고 하였고 학습목표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와 고려 가요에서 민요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습목표와는 맞지 않는다.

또한 처한 상황과 대응방식만 가지고 화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화자가 처한 상황도 화자가 있는 청산과 바다라는 공간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고 대응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활동을 하려면 <청산별곡>이 쓰여진 시대 상황과 같은 다른 추가 자료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알려준 다음 왜 화자가 이런 대응 방식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1은 <청산별곡>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1-(1)의 활동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므로 1-(2)도 그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1-(2)의 활동을 재구성해 보았다.

기존 활동	<p>내용1. '청산별곡'의 중심 내용과 시의 화자에 대해 살펴보자.</p> <p>(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p> <p>(2) 이 고려가요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화자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자.</p>
재구성 활동	<p>내용1. '청산별곡'의 중심 내용과 시의 화자에 대해 살펴보자.</p> <p>(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p> <p>(2) 다음은 <청산별곡>에 관한 자료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마지막 연에 나타난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해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청산별곡'은 고려 가요 중에서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시작(詩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고려 유랑민들이 삶의 고통과 비애로부터 벗어나고자 부른 '현실 도피적인 시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계속되는 환란, 무신들의 횡포, 몽골군의 침입, 왜구의 침입, 정치적 혼란 등 당시 민중은 현실적 삶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p> </div>

학습활동은 교과서의 전개부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읽기 후 활동에 해당한다. 학습활동은 연계성이 있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1-(1)에서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1-(2)에서는 왜 그런 태도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④ 미래엔컬처

미래엔컬처의 학습활동은 이해활동과 적용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이해 1은 작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인데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활동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적 전통의 수용·전승을 이해한다고 해놓고서는 1의 활동에서 화자의 위치를 찾게끔 하는 활동이 나타나있다. 이는 전통의 수용과 전승을 이해하는 활동과는 관련이 적고 민요와 청산별곡을 비교하는 이해2의 활동과도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의 수용과 전승이라는 측면에 맞게 재구성을 해 보았다.

기존활동	<p>이해활동.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문학적 전통의 수용과 전승 과정을 이해한다.</p> <p>1. 이 시가의 화자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화자의 위치에 대해 추리해 보자. (2) 화자의 위치에 따라 노래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해 보자.</p>
재구성 활동	<p>이해활동.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문학적 전통의 수용과 전승 과정을 이해한다.</p> <p>1. 다음은 고려속요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자.</p> <p>고려속요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를 이른다. 이는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운율이 무척 아름답고 표현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되어 있다. 여요(麗謠) 또는 장가(長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려속요는 ()나 ()을 가지는데 이는 옛날부터 현대의 민요 「아리랑」이나 「도라지타령」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우리 민요의 원형적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p>

이해활동 2가 민요와 청산별곡의 형식을 비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시가 문학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문학적 전통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의 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고려속요가 민요로부터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민요와 고려속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는 활동을 통해서 뒤에 이어지는 이해2와도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⑤교학사 교과서

소단원의 도입 활동으로는 김종삼 시인의 <목화>라는 시가 실려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야기를 만들도록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목화>와 <청산별곡>과의 관련성도 부족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학습자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것을 나타낸 이 시의 상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을 해 본적도 없을 것인데 경험하기 못한 것을 공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0학년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재를 선택하여 재구성을 해 보았다.

<p>기존 활동</p>	<p>생각열기.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p> <p>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 목화</p> <p>❶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이 시를 이야기로 꾸며보자. ❷ 할머니가 소에게 건넸을 말을 상상해보자.</p>
<p>재구성한 활동</p>	<p>생각열기. 다음 노래가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p> <p>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뿔쫓 하늘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했죠</p> <p>늦은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수없다 엄마에게 혼났죠</p> <p>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p>

	<p>하늘위 떠있는 멋진 달되고 싶어</p> <p>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오리날다 / 체리필터</p> <p>❶ 이 노래의 주인공이 왜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하는지를 말해보자.</p>
--	---

고등학교 1학년인 학습자에게 시보다는 노래 가사가 더 공감하기 쉬울 것 같아서 대중가요의 노래가사를 선택했고 <청산별곡>의 내용이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역시 이상향을 지향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를 골랐다.

도입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본문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학습목표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단원 (1) 문학과 현실의 학습목표에서 문학을 읽고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하고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해 본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의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노래 가사이지만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성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이해와 확인 5의 활동은 모방시를 짓는 활동으로 모두 활동을 하계끔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해와 확인의 활동은 총 다섯 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의 생각 넓히기 활동까지 따지면 학습자는 6개의 학습활동을 해야 한다. 생각 넓히기의 활동도 쓰는 활동이고 이해 5의 활동도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구성을 할 때에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기존 활동	<p>5. 이 작품의 화자와 같이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모방시를 지어 보자.</p> <p>(1)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p>(2)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p>
재구성한 활동	5의 활동 삭제.

위의 다섯 개의 교과서를 재구성한 결과 천재(김대행)과 교학사는 도입 활동을, 그리고 천재(김종철)과 비상, 미래엔결쳐, 교학사는 학습 활동이 학습 목표와 제대로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각각의 교과서마다 성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학습활동만을 놓고 봤을 때 교학사 교과서가 가장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 등에서 학습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해보았다.

Ⅲ. <청산별곡> 교수 학습 모형

앞의 본론 2장에서 <청산별곡>이 교과서 단원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재구성을 하여 <청산별곡>을 수업할 때 학습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5종의 교과서가 대체적으로 학습목표에 알맞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보충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그런 점을 덧붙여서 교과서를 재구성했고 기존 교과서의 잘된 부분과 재구성한 부분을 토대로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1. <청산별곡> 텍스트 재구성

교과서 글 제재의 학습 내용에는 글의 언어 형식적·구조적·미적 요소와 내용적·주제적·가치적 요소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포함된다. 따라서 글 제재가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렵고 교사의 설명과 같은 개입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교과서 학습량은 증가하게 된다. 어려운 글 제재는 그에 사용된 어휘 학습, 구조 분석, 주제 파악에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재 이해 자체에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을 준다. 그리하여 실제 수업은 이 제재를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¹⁴⁾

14) 최미숙 외 7인, 『국어 교육의 이해』, (주) 사회평론, 2008, 59쪽.

글 제재도 중요하지만 수업은 글 제재만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교과서 저자가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의하여 글 제재와 학습 활동을 구성한 것이 교과서이다.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만들어 지므로 교사 또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멀위:** 머루 **드래:** 다래
 ◇**널라와 시름 한:**
 너보다 시름 많은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프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고 싶구나.

다른 해석 '~리랏다'를 과거 가정법으로 보아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로 해석하기도 함
 이렇게 해석하면, 과거에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청산에 살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을 아쉬워 한다는 의미가 함축됨.

◆ **우리라** 울어라

다른 해석 감탄법으로 보아 '우는구나'로 풀이하기도 하고, '노래하다'의 뜻으로 보아 2연을
 '노래 불러라 새여,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로 풀이하기도
 함.

◆ **가던 새** 날아가던 새

다른 해석 '가던'은 '(밭을) 갈던'에서 ㄹ이 탈락되고 축약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음.
 따라서 3연을 '갈던 밭을 본다.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밭을 본다' 로 풀이하여 경작하던
 밭을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와 옛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기도 함.

◆ **물 아래** 물이 흘러가는 아래쪽 방향이나 그 지역

다른 해석 산속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 **잉 무든 장글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있음

- ① 이끼 묻은 쟁기일랑 ② 날이 무딘 병기(兵器)일랑 ③ 이끼 묻은 은장도일랑
 위의 해석으로 인하여 <청산별곡>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
 ① 쟁기나 병기로 보아 농사 지을 땅을 잃은 농민이거나 군인이었으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 65 -
 ② 은장도는 여성이 지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연당한 여성으로 볼 수 있다.
 ③ <청산별곡>의 화자를 지식인으로 보기도 한다. 몽골군의 침입, 왜구의 침입, 무신들의 횡
 포 등 당시 지식인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향인 청산을 지향
 하는 노래를 지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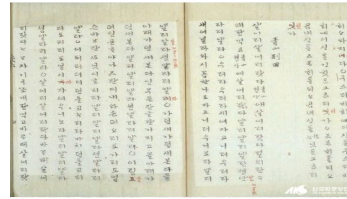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느므자기 : 해초 구조개: 굴조개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설진 강수 : 독한 술



-‘악장가사(樂章歌詞)’

- ◆ 피리도 괴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중세국어는 연철(이어적기)의 표기방식이 쓰였다. 가령 ‘괴다’(사랑하다) + ‘이’(사람) 의 경우에 ‘괴+리+이’→‘필이’→‘괴리’ 로 쓰였다.

- ◆ 예정지 아직 정확한 뜻을 밝히지 못함.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음.

- ◆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해석 사슴이 장대 위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함. 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 ② ‘사람’을 잘못 표기한 것 ③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놀이를 하는 것



서론에서 말했듯이 <청산별곡>은 어구의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날개 형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달아놓았다. 국정 교과서를 비롯하여 검인정 교과서 5종 모두 해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산별곡>에서 어구 말고도 화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점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추가했다. 화자를 여성이나 유랑민,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잉 무든 장글란’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이것을 근거로 화자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청산별곡>은 여기에 제시된 어구 해석 외에도 논란 거리가 많다. 가령 동일 화자인가 아니면 복수 화자인가 하는 문제도 제시된다.¹⁵⁾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함의된 부분이 없고 10학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텍스트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존 교과서에 나타난 것에 화자가 다양하다는 것만 추가하였다.

2. 수업지도안 구성과 수업연구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이기 때문에 수업지도안을 구성할 때 학습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안을 짤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려면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근거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작품에 대한 지식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활동 중심 학습 모형보다는 직접 교수가 더 적합하다고

15) 임주탁, 「몽골에 억눌린 시대의 저항의 노래 -청산별곡(靑山別曲)」,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193-202쪽.

여겨져서 이 모형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해본다.

직접교수 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략이나 기능을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수 모형이다. 직접 교수 모형의 기본적인 절차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우선이며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따라하게 된다. 이 교수 모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명하기-시범 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로 되어 있다. **본시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명	국어	대상학년	고 1	차시	3 / 5	장소	1-10교실
대단원 중단원	3. 문학과 예술			소단원	(1) 문학과 현실		
학습 목표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한다.						
단 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설 명 하 기	동기 유발	◎ 동기 유발하기 ▪ ‘오리날다’ 노래를 들려주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왜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왜 노래 속 주인공은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할까요? - 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 현실이 싫기 때문입니다.				20분	
	목표 확인	◎ 학습목표 확인하기 ▪ 문학은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기 전 활동	◎ 읽기 전 활동하기 ▪ 제목인 ‘청산별곡’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한다. ▶ ‘청산’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 자연을 나타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향을 나타냅니다. ▪ 도입활동의 ‘오리날다’와 관련지어 ‘하늘’과 ‘청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알게 한다. ▶ ‘하늘’과 ‘청산’은 어떤 곳 인 것 같나요? - 화자가 꿈꾸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청산별곡 내용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는 중 활동하기 ▪ 문학에 삶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글을 읽는다. ▶ 해석된 프린트와 각 연의 그림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한다. 		
시범보기	시범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별곡 내용 설명하기 ▪ 교과서 하단의 ‘알아두기’ 부분과 프린트를 통해 <청산별곡>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각 연을 해석한다. 	15분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질문하기	읽은 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은 후 활동하기 ▪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게 한다. ▶ 이상향을 나타내는 시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 - 청산, 마르 	10분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기 ▶ 화자가 청산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청산에 살고 싶다고 노래한 것이다. ▶ 당시 고려의 사람들이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 지친 삶에 대한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이상향에 관한 노래를 지어 불렀을 것이다. 		
	학습	◎ 학습활동	5분	

활동 동 하 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활동 4번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게 한다. ▶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빈 칸을 채워봅시다. - 청산, 마르 		
	정리 하기	<p>◎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별곡>이 이상향에 관한 노래라는 점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 ▪ 학습목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문학에는 삶의 모습이 반영되며 시대 상황이 문학에 담아짐을 언급한다. ▪ 차시 예고 ▶ <청산별곡>의 내용 해석과 고려 속요의 성격, 후렴구의 역할 등을 배울 것임을 예고한다. 		

1) 설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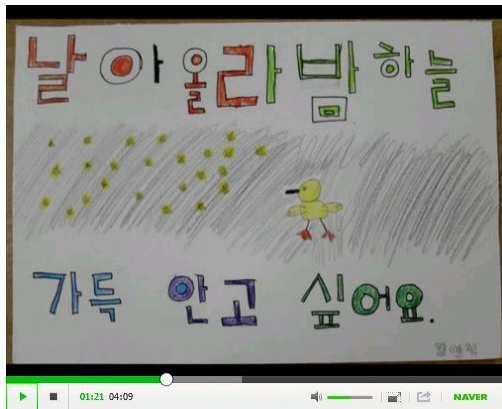
설명하기 단계는 학습 내용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을 왜 학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지 세분화하여 안내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확인 -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으로 단계를 구성했는데 그 중 동기 유발 부분에서는 대중 가요인 ‘오리 날다’를 듣고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해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교학사 교과서의 도입 활동 재구성을 수업 자료로 하여 만든 활동이다.

<p>☐ 오리 날다 / 체리필터</p> <p>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p>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꺼야

❶ 이 노래의 주인공이 왜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말해봅시다.

노래의 내용이 이상향에 관한 내용이고 <청산별곡> 또한 이상향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도입활동으로 제시하였다. 프린트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배우기 전에 고려 속요가 지금의 가요처럼 불려지는 노래였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배울 <청산별곡>이 이 노래 가사처럼 이상향을 꿈꾸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주소: <http://cafe.naver.com/alfso3/92>

대단원 3. 문학과 예술

소단원 (1) 문학과 현실 - <청산별곡>

반 번

1.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꺼야

♡ 왜 노래 속 주인공은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할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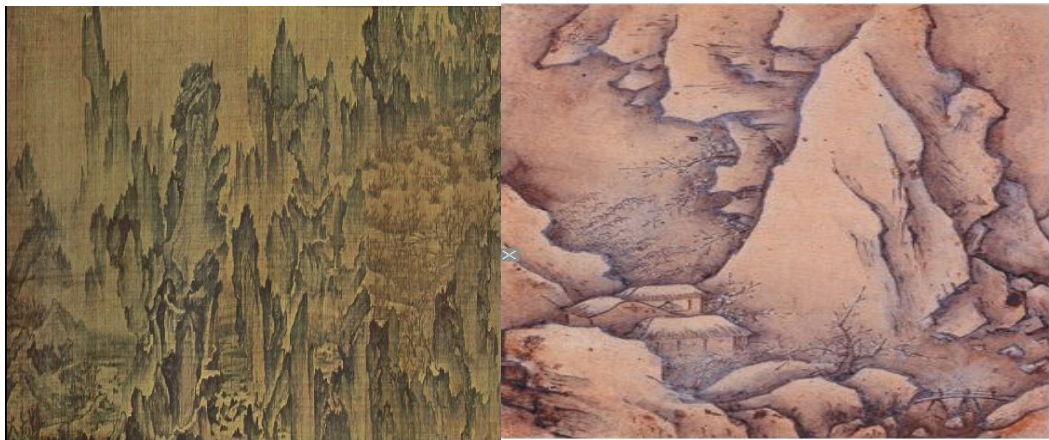


달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싫기 때문입니다.

매체를 사용할 경우 학습자가 좀 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식으로 도입 활동을 구성하였다.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사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학습지에서는 도입활동의 노래가사와 질문을 그림과 함께 넣어 말풍선 안에 적을 수 있도록 했다.

목표 확인에서는 학습 목표인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를 칠판에 미리 판서하여 학습자에게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환기 시키도록 하였다. 학습목표는 수업 표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동안 종종 학습자에게 언급시켜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하게끔 한다.



(안건의 ‘몽유도원도’)

(강희언 ‘차가운 적막 ’)

읽기 전 활동에서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과 도입 활동과 연결시켜 청산과 하늘의 의미를 학습자가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때 PPT를 통해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몽유도원도나 강희언의 그림 등을 보여줌으로써 청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이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학습자가 깨닫게 하고 청산 뿐만 아니라 하늘 등과 같이 이상향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위의 두 그림은 이상향과 관련된 그림으로 <청산별곡>에 나타난 청산과 바다가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시각 자료로 제시하였다. 안건의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복숭아꽃 만발한 낙원을 거니는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안건에게 부

탁해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현실에 없는 세계인 무릉도원이기에 그 곳을 그리며 그림으로나마 그 세계를 꿈꾸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알려준 후 강희언의 그림을 통해서 이상향이 무릉도원 뿐만 아니라 현실과 떨어진 곳 이라면 어디든 이상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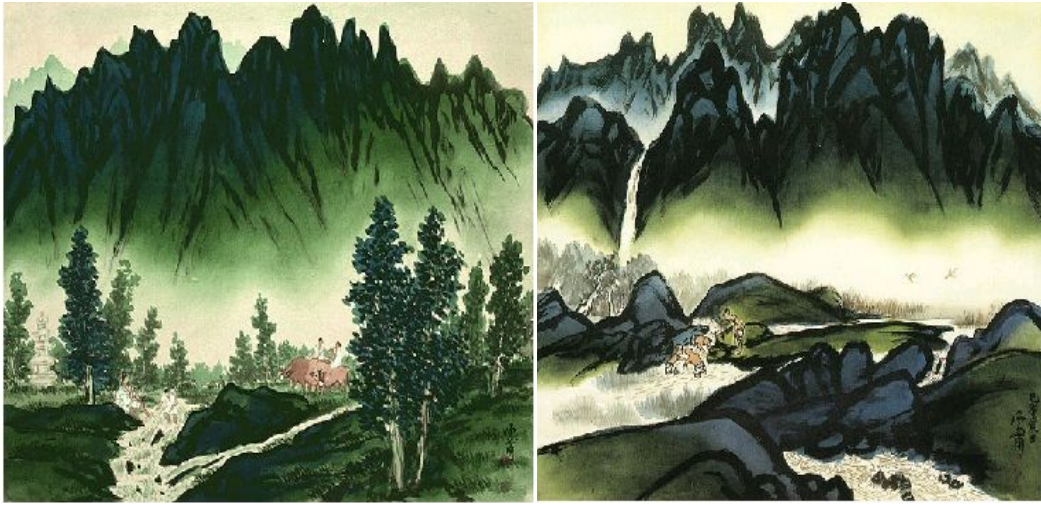
읽기 전 활동을 통하여 이 노래가 이상향에 관한 노래임을 언급하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읽기 중 활동으로 넘어간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학습자와 함께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이 때도 학습목표를 다시 한 번 언급하여 문학이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 하며 읽게 하고 내용을 파악할 때는 해석이 된 프린트와 각 연 별로 내용에 알맞은 그림이 제시된 PPT를 통해 학습자가 청산별곡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자료처럼 연 별로 그림과 함께 삽입을 하여 각 연의 내용이 어떤 것 인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ppt 자료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이다. <청산별곡>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어의 해석과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PPT 자료 보다는 앞의 <청산별곡> 텍스트 재구성을 한 것을 학습자에게 나눠주어서 <청산별곡>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림: 운보(雲甫) 김기창 화백의 ‘청산화(靑山畵)’ 들)

이번이 <청산별곡> 첫 차시이며 1회로 <청산별곡>을 다 설명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번 수업에서는 시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고 시대적 상



황과 연관지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2)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 단계는 학습 내용 적용의 실제 예시를 보여주고, 그것이 습득 방법이나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나누어 직접 시범 보이거나 매체를 활용하여 시범 보이는 단계이다. 앞서 제시한 프린트와 PPT를 통해 <청산별곡>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학습 목표에서 문학과 삶의 관계를 알아본다고 했고 교과서 하단에도 ‘알아두기’라 하여 이 부분이 구체화 되어 있다.

교과서 하단의 ‘알아두기’

문학과 현실 - 문학 작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문학을 ‘현실을 비추는 거울’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문학은 인간 세계의 현실에서 소재를 얻어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문학적 형식이나 방법에 따라 형상화 된다. 즉, 작가는 자신이 사는 시대, 또는 과거의 어떤 시대 상황을 문학에 담아낸다.

문학이 삶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 상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주의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프린트를 통해 <청산별곡>이 쓰여졌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교과서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교사가 학습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청산별곡>의 시대적 배경

청산별곡의 창작 시기는 고려 후기 무신의 집권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 전체가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시달리던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무신들의 횡포와 원의 세력에 기댄 권문세족들의 수탈이 막심하여 많은 백성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나 사망으로 유랑하던 시기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쉽게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세속을 떠나 은둔하기도 하였던 것이 고려 후기의 현실이었다.

앞서 천재(김종철) 교과서 재구성에서 <청산별곡>의 시대적 배경에 관해 위와 같이 학습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시가 지어졌을 당시는 **무신 집권기로 민중의** 삶이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이와 관련해서 이 노래의 화자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시적 화자나 내용의 다양성까지 설명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는 다음 차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며 여기서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뒤 다시 프린트와 PPT를 통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이 각 연에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질문하기

질문하기 단계는 세분화된 학습 내용 습득 방법이나 절차를 교수가 한 단계씩 학생들을 유도하며 과제 수행을 돕는 단계이다. 앞서 설명하기와 시범보이기를 통해서 <청산별곡>이 이상향에 관한 노래라는 점, 무신난의 혼란스러운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였다. 먼저 이상향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본문을 통하여 그 이상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찾도록 하였고 이 노래가 왜 쓰여졌는지를 학습자가 생각해 보도록 했다. 수업에서 문학은 시대 상황을 담아낸다는 점, 그리고 학습 목표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가 떠올려서 문학이 위로의 기능

을 한다는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 오늘 배운 <청산별곡>은 이상향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상향이 어떤 시어로 표현이 되어 있나요?

학 생 : 청산과 바다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도입 활동의 노래 가사에서는 어떤 단어가 청산이나 바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닐까요?

학 생: 하늘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하늘, 청산, 바다 모두 이상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상향을 노래하는 시가 불러졌을까요? 앞서 배운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지어서 대답해 봅시다.

학생: 무신난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상향을 노래하는 시가 지어져서 불러졌습니다.

질문하기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보조자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오류를 저질렀을 경우 그것을 정정하고 다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을 경우에도 다시 설명하기 보다는 답을 기다려주어야 하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다른 질문을 통하여 배운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활동하기

활동하기 단계는 교사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

습 내용을 적용하면서 연습하고, 이를 적용 가능한 실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문학과 삶의 관계, 그리고 문학이 시대를 반영하며 <청산별곡>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 지를 배웠으므로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인 이해와 확인 4를 통해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였다.

이해와 확인 4.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청산별곡>은 고려가요 중에서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시작(詩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고려 유랑민들이 삶의 고통과 비애로부터 벗어나고자 부른 ‘현실 도피적인 시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계속되는 환란, 무신들의 횡포, 몽골군의 침입, 왜구의 침입, 정치적 혼란 등 당시 민중은 현실적 삶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慾望)이 이 시의 ()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해와 확인 4에서는 <청산별곡>이 지어진 상황이 나타나 있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민중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시대적 배경과 시의 내용에 대해 배웠으므로 이 학습활동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게끔 하고 학습목표를 다시 한 번 주의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를 통해서 <청산별곡>의 내용 정리와 속요의 성격,

학습 활동을 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연습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2. 보충 학습 활동

위의 제시된 한 차시 수업시도안 만으로는 <청산별곡>의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없다. 지도안에서는 <청산별곡>이 당시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 내용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학습자에게 알려주게 되어있다. 이 지도안은 <청산별곡> 1차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수업지도안에서는 <청산별곡>의 내용 이해와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청산별곡>의 특징과 고려가요라는 장르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고려가요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학습자가 <청산별곡>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고려가요를 접했을 때도 <청산별곡>과 비교·대조를 하면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원의 학습목표가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한다.’ 이므로 이것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읽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보충 학습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는 <청산별곡> 본문의 내용과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도 시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활동 부분은 학습자가 집에서 스스로 하는 수행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충 학습 활동에서는 고려가요라는 장르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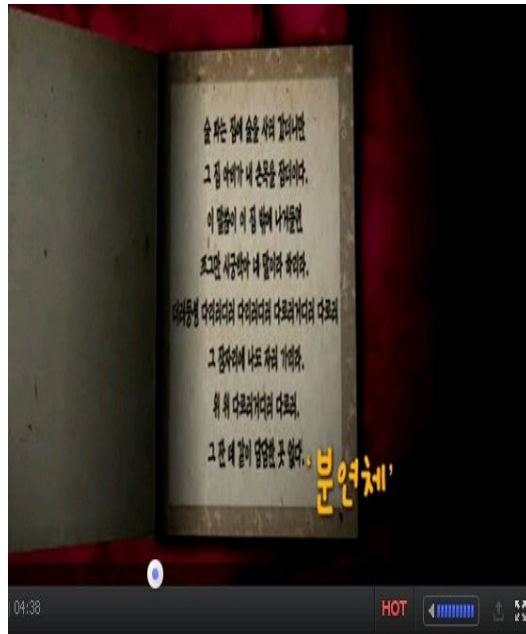
과 <청산별곡>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학습 활동 두 가지를 제시 하도록 하겠다.

1) 고려가요로서의 <청산별곡> 이해하기

보충 학습 활동은 새로운 학습 내용을 담기 보다는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거나 더 깊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습 시간과 공간을 교과서 너머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매체를 통한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문자 언어로 표현된 시를 읽으면서 다양한 영상 이미지들을 떠올리거나, 특정 텍스트를 덧글과 함께 읽으면서 의미를 공유하는 방식은 미디어 시대 독자들에게 이미 친숙한 읽기 방식이자 소통 방식이다.

문학을 둘러싼 환경은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문학을 읽고 감상하는 방식에서부터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설화와 고전 소설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 매체를 잘 이용한다면 텍스트 매체보다 미디어 매체에 익숙한 10학년 학습자들에게 고전을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5460416> 쌍화점 그리고 고려가요)



위의 영상 자료에서는 <쌍화점>이라는 것과 고려가요를 연관지어 설명한다. 5분 밖에 안되는 짧은 영상이며 텍스트도 있지만 영화 ‘쌍화점’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흥미있게 고려가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보충 학습 활동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뒤에 <청산별곡> 적용 활동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한 학습 활동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도 페이스북에 링크시켜서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학습지를 통해 고려가요와 <청산별곡>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고려가요가 궁중으로 유입되어 궁중음악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박정재 영상을 같이 보여준다면 학습자가 좀 더 쉽게 고려가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앞에 영상이 고려가요의 특

정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이라면 무고 영상은 고려가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영상물로서 학습자가 글로 보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보충자료로서 적합하다고 여겼다.



(<http://www.youtube.com/watch?v=Y-tBBQNXt0c> 정재 - 무고)

페이스북에 걸린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다양한 매체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든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고려가요가 노래로써 불러졌다는 지식 보다 학습자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직접 실현 양상을 봄으로써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를 통한 학습 활동을 만들어 보았다.

관련 단원	3. 문학과 예술	활동일	
	(1) 문학과 현실	이름	
활동 목표	고려가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페이스북에 올라온 ‘쌍화점 그리고 고려가요’의 영상을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고려가요의 특징	보충자료
3	<p>서민들의 감정을 담은 노래야 고려속요는 서민들이 주로 불렀기 때문에 체면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솔직한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어. 고려속요는 남녀 간의 사랑,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등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어서 당시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p> 
<p>청산별곡에서 위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적어보자</p> <p>-우러라 v 우러라 v 새어</p>	
분	<p>-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하여 조선시대에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란 비판을 받았다.</p>
<p>여러 절 또는 여러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의미함.</p>	

후 노래 곡조 끝에 붙여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여 부르는 짧은 몇 마디의 가사. Ex.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더 알아보기 주요 고려속요 작품		
	작품명	작품의 내용	실린 책
	동동	매달의 풍속을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	악학계법
	처용가	항가 '처용가'에 내용을 덧붙여 부른 작품	악학계법 악장가사
	청산별곡 가시리	이별을 노래한 작품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절석가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작품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사모곡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쌍화점 이상곡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한 작품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만춘전		
	상저가	방아를 짙으면서 부른 작품	시용향약보
	유구곡	비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	시용향약보

학습지는 위의 두 영상을 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부분에는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하여 일명 '3분후'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그것이 <청산별곡>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지를 찾는 활동이다. 영상에 해당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하여 고려가요가 3음 보라는 점, 분연체라는 점, 후렴구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적을 수 있게 하였다.

오른쪽 부분에는 보충자료로 고려가요가 서민들의 감정을 담은 노래라는 것과 그래서 남녀상열지사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찾아 괄호 안에 넣게 하였다. 이 또한 영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가 충분히 찾아서 적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충자료 밑에는 다른 고려가요 작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실어 놓았다.

수업시간에 <청산별곡>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 내용에 관해 배웠지만 이 작

품의 고려가요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린트와 영상을 통하여 학습자가 고려가요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체를 통해 보다 학습자에게 친숙하게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충 학습 활동을 이렇게 꾸려보았다.

2) <청산별곡> 적용 활동

교학사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작품 내용과 관련된 이해와 확인 활동과 생각넓히기 활동으로 나타나 있다. 이해와 확인은 작품 내용을 읽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넓히기 활동은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다룰 필요가 없다. 교과서에서는 ‘과꽃’이라는 노래가사를 보고 재구성하는 활동과 공감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를 통하여서도 대치가 가능하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고 지식이나 기능 보다 실제 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실생활 능력의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흥미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식과 기능이 바탕이 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생각넓히기 활동은 가곡의 가사를 재구성해 보는 활동이다. 이것도 학습목표를 잘 드러낸 활동이지만 <청산별곡>과의 주제적인 연관성과

고려했을 때 다른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활동을 수행평가로 하되 여기서는 평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상상력과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구성하였다. 문학 교육의 본질에 맞는 평가를 위해서는 수행 평가가 적합하다. 하지만 문학 교육의 경우 수행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자주 제시된다. 그 이유는 특정 문학 작품에 대하여 학습자의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독자들이 보이는 문학적 반응이나 표현을 위계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6) 따라서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는 이것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의 관점을 취하도록 한다.

16) 『국어 교육의 이해』, 최미숙, (주) 사회평론, 2008, 347쪽.

<수행평가>

1. <청산별곡>처럼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용의 문학 작품이나 노래를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2. 그 노래나 문학 작품의 어떤 구절에 공감이 가는지 댓글을 달아보자.

예시.



수행평가로는 위와 같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사용하였다. 개정 7차를 비롯하여 7차에서도 매체 교육을 강조하였고 수행의 수월성의 측면에서도 매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 수행평가 결과물을 올리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가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를 성찰한다.’ 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노래를 찾는 활동을 하게 하였고 공감이라는 점에서 댓글을

달게 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가를 할 때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문학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문학 교육의 본질에 맞는 평가는 선택형 평가 보다는 수행 평가이다. 문학 교육에 있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앞서 말했듯이 특정 작품에 대하여 학습자의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독자들이 보이는 문학적 반응이나 표현을 위계화하기 힘들다. 문학 교육에서 평가란 학습자 개별적인 주체성에 근거한 정서적 반응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에 따라 정서나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같은 자료, 또 같은 문학 작품을 읽고도 생각하는 것 혹은 표현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반응을 인정하되, 그 반응이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다면 모두 동일한 수준을 지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따라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게 하고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도록 해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습자가 올린 제재가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가 댓글로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게 한다. 학습자가 문학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을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는 하지 않되 상호작용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댓글을 2개 이상 달도록 하고 교사도 댓글을 달아주면서 학습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17) 최미숙, 『국어 교육의 이해』, (주) 사회평론, 2008, 348쪽.

IV. 결 론

<청산별곡>은 시어 및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작품이 16종이나 되는 10학년 검인정 국어 교과서중 5종이나 실려 있는 이유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적합하며 문학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고1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산별곡>은 어떻게 교수-학습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고 내용 성취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서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에 맞게 교수 학습을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미흡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습 목표와 연관지어 학습 활동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마다 성취 기준이 다양하고 편찬자의 의도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가 좋다 라는 것을 판별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을 비교할 때 그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폈고 연관성이 적다면 이 활동을 교수-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교과서 재구성과 교수학습지도안 이라는 점으로 제시하였다.

교과서 재구성은 제재의 재구성과 학습활동의 재구성으로 나누어 하였다. <청산별곡> 제재의 재구성은 10학년 학습자가 좀 더 수월하게 <청산별곡>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의 논의가 있는 어구와 생소한 단어 해석을 낱개 형식으로 달았다. 또한 관련 삽화를 넣어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어렵게 받아들이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학

습활동의 재구성은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만들었다. 단원 구성에 있어 텍스트와 학습활동은 결국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단원 학습목표와 연관지어 학습활동을 재구성했다.

3장에서는 재구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청산별곡>의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업지도안과 보충 학습 활동의 두 가지로 나타내었고 수업지도안에서는 작품 해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직접 교수 모형으로 지도안을 설명했다. <청산별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로 프린트와 그림 자료, 그리고 글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청산별곡> 작품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성격 및 적용 활동을 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이는 보충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보충 학습은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댓글을 달고 학습자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활동과 링크를 걸어 영상을 감상하고 학습지를 통해 고려가요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만들었다.

교과서 분석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교사의 재량이고 이 지도안이 실제 수업에 쓰였을 때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낼지는 아직 모르지만 학습자가 <청산별곡>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문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지도안대로 수업을 해 보지 못해 이 지도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학습지도안을 토대로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이고 참신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고등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국어 (상)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국어 (상) 교과서, 미래엔컬쳐, 2011

고등국어 (하) 교과서, 비상, 2011

고등국어 (상) 교과서, 교학사, 2011

고등국어 (상) 교과서, 천재 (김대행), 2011

고등국어 (상) 교과서, 천재 (김종철), 2011

2. 단행본

국어국문학회, 『고려가요·악장 연구』, 태학사, 1997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최현섭,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임주탁, 「몽골에 억눌린 시대의 저항의 노래 -청산별곡(靑山別曲)」,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이삼형,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최미숙, 『국어 교육의 이해』, (주) 사회평론, 2008

임주탁, 『옛노래 연구와 교육의 방법』,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9

3. 논문

- 김혜영, 「‘청산별곡’의 감상 지도 방안 모색」,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 강희경, 「〈청산별곡〉 교육 방안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이경은, 「〈청산별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8
- 강지영, 「구성주의 관점의 〈청산별곡〉 감상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임주탁, 「국어교과의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대한 비판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2009
- 이선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청산별곡〉 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박수화, 「고등 국어 고전시가의 지도 방법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년

ABSTRACT

Teaching-Learning Method of
<Cheongsanbyeolgok>

Kim Su You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
University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of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appreciate and create literature themselves. Students also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social value presented in the works. This equally applies when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Teachers should

appreciate literatur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in which students must understand classical works from subjective point of view. Students should be able to accept the work actively, understand it in their own language and even recreate their own literature.

Accepting a work of literature does not simply mean reading and interpreting it; but it is a process in which one actively responds to and creates his or her own meaning. I have turned this process 'reconstru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should be taught in a manner wher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life and sentiments of the past and interpret the text from today's perspective. This is the first stage of the 'reconstru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s left solely in the hands of the reader. It is the teacher's responsibility to lead students to understand and imagine the situation the writer or the narrator was in, in order to imagine what was happening to the narrator and what the narrator was feeling at that moment.

The third stage of the 'reconstruction of classical literature.' is a stage of recreation. It is the stage where the work is critically and creatively recreated by the viewer.

Before going into researching the method of teaching based on these contents and goal, I reviewed various issues concerning <Cheongsanbyeolgok>, After research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writer, how the work was handed down to our generation, structure of

the song, analyzing each verse, and considering the rules of versification, it was concluded that since <Cheongsanbyeolgok> is an old song it can be translated in many different ways.

This thesis represents one method of teaching <Cheongsanbyeolgok>. This program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work, leading them to sympathize with the writer; also through recreating the cherished piece of work,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that classical works still influence our lives today.